

진현환 1차관,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

- “기업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입지 공급에 만전”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(수)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.
 - 이번 점검은 “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”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(1.15) 후속조치로,
 -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,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·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.
-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, “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”면서,
 - “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, 예타 면제, 농지 전용 등 각종 인·허가 사전협의,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하여 '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진 차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, 지난해 11월 발표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 지구(1.6만호) 후보지 현장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.
 - 진 차관은 “'27년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,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산업기능에 더해 근로자의 정주여건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4. 3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